

## 파월 피봇과 달러 강세 정점론

### ■ 주간 동향: 7월 FOMC회의 안도감으로 달러 약세 전환

- ✓ 달러화가 2주 연속 약세를 기록하면서 달러화 지수 정점론도 아직 이른 감이 있지만 일부 가시화되고 있음. 7월 FOMC회의 결과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 둔화 시그널과 더불어 2분기 미국 GDP성장률 역성장에 따른 침체 논란으로 달러화 강세 기조가 한 풀 꺾임
- ✓ 유로화 가치는 패리티관련 불안심리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지만 달러 약세 영향으로 전주대비 소폭 반등함
- ✓ 위안화 가치는 3주만에 반등했지만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미-중 정상회의 이후 더욱 불거진 갈등 리스크 등으로 위안화 가치 상승폭은 제한됨
- ✓ 원/달러 환율은 FOMC회의 안도감과 외국인의 국내 주식순매수 확대 등으로 7월 7일 이후 근 3주만에 1,299원으로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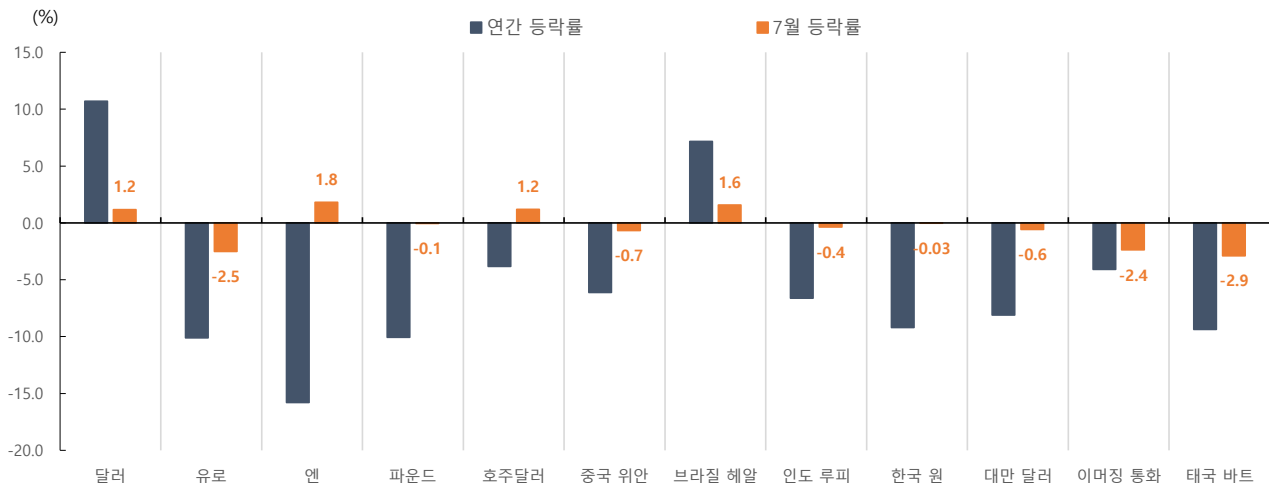
〈표〉 주요국 주간 환율 동향

	7월 29일 종가	전주 대비 (%)	전년말 대비 (%)
달러화 지수	105.9	-0.77	10.70
달러/유로	1.022	0.07	-10.11
엔/달러	133.3	-2.09	15.81
역외 위안/달러	6.750	-0.25	6.18
원/달러	1299.1	-1.06	9.28

### ■ 금주: 미국 경기침체 논란 확산 VS 유럽과 중국 리스크

- ✓ 이번주 발표되는 7월 ISM제조업 지수와 고용지표 결과는 미국 경기침체 진입 논란을 불을 지필 것으로 예상되어 달러화는 추가 하락보다 변동성 장세가 전망됨. 다만, 두 지표를 통해 경기 부진 확인과 물가 둔화 시그널이 확인된다면 파월 피봇이 더욱 부각되면서 달러화의 하락세도 지속될 수 있음
- ✓ 달러화 강세 모멘텀이 약화된 상황이지만 유럽내 에너지 리스크와 더불어 중국 경기 둔화 우려 확대는 달러화 낙폭을 제한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특히, 7월 중국 제조업 PMI지수가 49로 재차 50선을 하회하면서 경기 불안 우려를 자극한 것은 위안화 가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 원/달러 환율의 경우 달러화 하향 안정과 더불어 외국인 주식순매수 확대에 기댄 주가 반등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소폭의 추가 하락이 기대됨

그림1. 7월 한달 달러 강세 현상이 주춤해진 가운데 주요국 통화 약세 현상도 대부분 진정 혹은 일부 통화는 강세 전환



자료: Bloomberg, CEIC,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 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박상현, 류진이)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